

646일만에... 진도 떠나는 세월호 유품

교복·운동화·여행가방 등 팽목항 1169점 안산으로

“애들이 같이 올라가자” 유가족들 통곡에 숙연

“세 번을 다 뒤졌는데도 지성이 물건은 없네요...”

‘4·16 TV 제작자’ 지성아빠 문종택(55)씨는 진도를 20번도 넘게 찾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함께 스튜어디스가 꿈이었던 딸 지성이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유품을 찾고 싶어서다. ‘지성아빠’는 진도군이 보관해온 주인 없는 유품과 유류품 1100여 점을 벌써 3차례나 살살이 살펴봤다. 지성이 언니와도 함께 왔었지만 둘째 딸의 것이라고 보이는 물건은 찾을 수 없었다.

‘지성아빠’는 21일에도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기록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자원봉사자 등 17명과 함께 진도를 찾았다. 진도군청 뒤편 컨테이너에 임시보관 중인 주인없는 세월호 유품·유류품을 경기도 안산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다.

그는 “지성이 엄마는 아직도 지성이가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올 때 입고 있던 청색 티셔츠를 세탁조차 하지 않고 비닐에 보관하면서 딸 냄새가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며 눈물을 흘린다”며 “오늘도 흑시나 하는 마음에 함께 왔

데 유품인 여행용 가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품으로 남아 진도에 머물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혼은 이날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들의 손에 의해 경기도 안산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46일 만이다.

컨테이너 2동에는 26종, 217상자, 1169점의 유품·유류품이 박스에 포장된 채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단원고 학생 교복, 260mm 운동화, 여행용 가방, 점퍼, 티셔츠, 기타, 유아용 장난감 등 슬픔이 깊게 밴 유품들은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이 중에는 세월호 이준서 선장의 배낭도 있었다.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 5명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을 억누르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품을 5t 무진동 박스 차량에 옮겨 실었다.

단원고 희생자 동수의 아버지이자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 정성욱(46)씨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유품들을 불태우는 것이 맞지만, 그날을 기억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안산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했다.

단원고 희생자 수진 양의 아버지 김종기(52)씨는 “딸의 지갑과 MP3 등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찾지 못했다”며 “이곳에 아이들이 있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저며온다. 수학여행 끝나면 즐겨웠느냐고 묻고 싶다”고 응어리진 마음을 털어냈다.

가족들은 유품을 모두 옮겨 실은 뒤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팽목항으로 향했다. 성욱씨는 팽목항 등대에서 단원고 학생의 교복이 든 여행용 가방을 놓고 “애들이 미안하다. 뒤늦게나마 같이 올라가자. 미안하다”고 목놓아 외쳤다.

이어 가족들은 항구 옆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 둘러 항을 피우고 국화꽃을 올려놓은 뒤 다시금 아이들을 추억했다. 임시 분향소에 놓인 희생자들의 사진 사이사이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이 노란 공백과 함께 남아 있었다. 가족들은 임시 분향소 옆 가족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을 마친 뒤 안산으로 향했다.

생존자 소희양의 아버지 박운수(44) 선체인양TF팀장은 “어제 유품과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부모들이 못 찾을까 봐 걱정된다”며 “오늘은 그냥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산으로 옮겨진 유품·유류품은 세척 과정을 거친 뒤 온·오프라인을 통해 목록을 공개, 주인과 가족을 찾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이나 가족들이 기증의사를 밝힌 유품·유류품은 4·16기억저장소 기록팀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증언하는 역사기록물로 보존·관리하고, 일부는 향후 헌터 예정된 세월호 추모관 등에 옮겨 전시된다.

/진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주인없는 유품

아름고스란히



“이제 고향으로 가자꾸나”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품을 안산으로 옮기기 위해 21일 진도를 찾은 정성욱(46·단원고 학생 동수 군의 부친)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이 단원고 교복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팽목항을 둘러본 뒤 발걸음을 되돌리고 있다. /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646일째... 떠나지 못하는 가족

술로 눈물로 지새워 “딸·동생 등 시신 찾아 장례 치러주고 싶어”

21일 오전 진도 팽목항에는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눈발이 이따금 내렸다. 항구 옆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와 임시 거처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만이 항구를 지키고 있었다.

실종자 가족 권오복(62)씨는 이날도 그리운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팽목항에 머물고 있었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16일) 서울에서 동생의 사고 소식을 듣고 곧장 이 곳으로 내려와 646일째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권씨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불 속에 있는 동생 재근(당시 51세)씨와 조카 혁규(당시 6세)군의 시신을 찾을 수 있다는 희

망 때문이다. 권씨는 “동생과 조카는 세월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시신을 찾아 장례를 마친 뒤 팽목항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생계비도 받지 못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 곧 인양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팽목항에 머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일주일만 술로 지새우기도 했던 그는 최근 임시 분향소 등을 관리하면서 세월호 관련 소식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진도에서 안산으로 옮겨진 유품·유류품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그 불건들에 대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다가 왜 이제야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며 “세월호와 관련된 물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현재 권씨와 함께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이는 희생자 친민 군의 아버지 조인호씨, 우재 군의 아버지 고영환씨 등 유가족 2명, 자원봉사자 등이 있다. 또 실종된 딸 은화양을 에타게 기다리고 있는 조남성·이금희씨 부부가 종종 팽목항을 찾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단원고 조은화·허다운·박영인·남현철 학생, 단원고 교사 양승진·고창석씨, 이영숙씨 등 9명이다.

한편, 정부와 진도군은 모두 270억원의 예산을 들여 팽목항 인근에 오는 2018년까지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오는 3~10월 부지선정 등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 착공할 계획이다.

/진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광주지법 판결 2제

“수사에 영향 주지않는 기록 공개해야”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관련 기록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자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했다. 이마저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자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이에 검찰은 일부는 공개하고, 나머지는 직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자 A씨는 비공개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문, 내사자료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들었다. 그러나 A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건 기록, 출석요구서, 수사보고서, 송지서 사본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료 카톡 비방 지방의원 징계 부당”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동료 의원을 비방했다고 의회가 지방의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강희)는 광주 동구의회 김모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의 품위는 의원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김의원의 행위가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5월 동료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편의점 알바생 강도 자작극 ‘딱걸렸어’

○~용돈 마련을 위해 편의점 강도 ‘자작극’을 꾸민 10대 2명이 사건을 맡은 형사의 눈썰미에 걸려 범행이 탄로.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서구 치평동의 한 편의점 종업원 A(16)군은 지난 16일 밤 11시25분께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 용기를 든 강도범이 들어 현금 20만원과 담배 20보루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종업원이 최근 자신이 해결한 절도사건의 피의자 일당이었던 것을 현장 도착 즉시 눈치채고 “범행이 녹화된 CCTV에 긴장감이 없고 신고도 늦게 했는데, 강도범이 네 친구 아니냐”고 추궁하자, A군은 “친구가 맞다. 녀석이 돈이 궁하다기에 같이 짜고 자작극을 꾸렸는데, 하필 형사님이 사건을 맡았냐”며 범행을 자백. /김철호기자 kh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NPL매 •NPL중개 •NPL질권대출 •경락잔금대출 •NPL등기업무

NPL 질권대출 전국 특판공지

국내 최저금리!! 최대 한도!! 제이앤와이도시개발에서로 업계 최고의조건으로 질권대출을 안내합니다.

대출항목	아파트	주택	토지,상가,공장,숙박,사우나등
금리	3.8~5.5%	4.0~5.5%	5.5~6.5%
조건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혹은 7.0%)
중도	중도 무	중도 무	중도 무
취급	취급 무	취급 무	취급 무
한도	한도약정 무	한도약정 무	한도약정 무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